

태무 쇼핑물

미국 구매자들이 인플레이션 염려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시즌도 [태무 쇼핑물 사이트](#)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11일(현지시간) 전했다.

저널은 공급망 혼란 속 상승한 물가에도 여전히 구매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회사들도 재고를 매끄럽게 늘려 쇼핑 계절 수입 부진 불안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. 이날 미 상무부가 공지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.9% 늘어 전문가 예상치 1.4% 증가를 상회하며 최근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. 12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6월 잠시 뒤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. 자동차, 휘발유,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저번달 1.1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 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다수인 전공가가 1분기 국내총생산(GDP) 예상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었다. 월마트는 8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.7% 늘렸다면 연말 성수기 매출 호조를 예상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혀졌습니다. 월마트는 5년 이상 영업해 지난해 실적과 비교 최소한 가게들의 수입이 4분기에 9.4% 늘어나는 등 구매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) 충격에서 멀어져 일상적인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고 이야기했다. 또 이날 매출 1천409억 달러(약 169조원), 조정 주당순이익(EPS) 1.45달러 등 전공사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.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매출 1천354억3천만 달러, 조정 EPS 1.40달러였다. 단 순이익은 돈 증가의 효과로 34억1천만 달러(약 1조6천700억원), 주당 1.11달러로 작년보다 하향했다.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4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9.2% 늘어난 361억2천만 달러(약 41조5천억원)의 매출을 기록, 월가의 전망치를 많이 웃돌았다.



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관리하는 데다 대량화흔히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공급망 혼란의 영향을 상대적 덜 받고 있습니다고 분석하였다. 또 소비자들이 작년 연단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이번년도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'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'이라고 관측했었다.